

## 중학생들의 생활양식에 드러난 주거지역별 학교역할의 차이\*

장수명\*\* · 박혜원\*\*\*

### 초 록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차이가 주거분리로 이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계층별 주거분리가 뚜렷한 대전의 동구와 유성구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면담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드러난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로 학생들의 생활양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성구 학생들의 경우 방과 후는 물론 일부 학교생활조차 학원의 굴레에 갇혀 있었으며, 학력경쟁의 규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반면, 동구 학생들은 덜 경쟁적이며, 방과 후 생활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양상이 다르나,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방치되어 있었다. 교사에 대한 기대에서 동구 학생들은 따뜻한 부모와 같은 교사상을, 유성구 학생들은 재미있고 친구 같은 선생님 상을 기대했다. 동구의 학교는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유성구는 학원 등 사교육에 의해 학교역할이 제한되거나 방해받고 있었다. 이웃에 대한 이해에서도 동구 학생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서구 학생들은 편의시설 및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에의 참여도 거의 없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층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학원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과 단체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학교, 지역사회기관 등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계층별 주거분리, 중학생, 이웃효과, 학교효과, 생활양식, 학교 역할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 S1A5A2A03034731).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제1저자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교신저자, pheawon@kongju.ac.kr

## I. 서론

신도시 개발과 구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계층별 주거지역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 연계되어 계층분리가 심화되는 현상, 교육특구로 불리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김교성, 2010; 홍성효, 장수명, 2014; 배순석, 전성제, 2006; 손준중, 2004; 신명기, 2010; 김미숙, 상종열, 2014). 교육의 지역별 격차가 서울의 강남과 기타 지역 외에 분당과 구 성남, 대구의 수성구와 기타 지역, 부산의 해운대 신도시와 기타 지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층별 주거지 분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계층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계층이 밀집된 지역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학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한다. 서로 다른 가정, 학교 및 이웃이라는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맥락은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그 차이는 교사, 친구들과의 교류 속에 드러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사회 정책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학교 역할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이질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이를 통하여 학교(교사)의 역할과 의미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질적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교사)의 역할과 의미가 어떻게 다르며, 그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 문제로 삼았다. 우리는 서울의 강북과 강남처럼 사회경제적 배경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대전의 동부·서부(임선희, 김경희, 2006) 지역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교육과 주거분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계층분리의 실태와 교육의 관계를 분석하였다(김경근, 2005; 최은영, 2004; 류방란 외, 2005; 임선희, 김경희, 2006). 또 다른 연구들은 특정한 지역으로 계층분리가 일어난 동기에 주목하고 그것이 교육적 동기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김경근, 장희진, 2005; 류주현, 2006; 김종혁, 이상혁, 2010). 중산층 이상이 교육적 이유로 밀집한 지역을 ‘교육

특구'로 명명하기도 했다(손준중, 2004). 일부 연구들은 각기 분리된 지역의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분석했다(신명기, 2010; 김미숙, 상종열, 2014).

분리된 주거지역의 특성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이웃환경이 청소년이나 학생들의 삶과 학업성취 등에 미친 영향, 즉 이웃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이웃효과란 '주거지역과 사회적 환경의 독립적인 효과'(van Ham, Manley, Bailey, Simpson & Maclennan, 2012)로 정의되고 개인적인 특성과는 구별되는 이웃의 집합적 특성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별도의 영향을 뜻한다. 특히, 박탈이 심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전망에 이웃의 특성이 주민들의 개인적 특성의 영향과는 별도로 미치는 부정적 효과로 지칭되기도 한다(van Ham et al., 2012.<sup>2</sup>) 하지만 비슷한 계층의 이웃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웃의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한 동기가 강하다. 예를 들면 자녀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위하여 주거지역을 선택함으로써 '교육특구'가 생긴 경우이다(손준중, 2004; Johnson, 2008). Durlauf (2004)는 이웃효과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는 일종의 외부효과로, 주변에 사는 이웃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자들은 이웃 환경이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 생애 전반에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Johnson, 2010; Durlauf, 2004; van Ham et al., 2012) 어린 시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이웃효과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상관없이 '집합적 특성을 지닌 주민(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 외부효과'로 정의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웃효과와 관련으로 지목한 것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Galster, 2012; Johnson, 2011; Durlauf, 2004).<sup>3</sup> 학교효과와 이웃효과를 분석한 문헌

1) 많은 이웃효과 연구들은 이웃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중도탈락, 일탈 행동, 학교선택 및 건강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van Ham, Manley, Bailey, Simpson & Maclennan, 2012; Johnson, 2008; Kang, 2007; Durlauf, 2004; Kauppinen, 2008).

2) "living in deprived neighbourhood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residents' life chances over and above the effect of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n Ham, Manley, Bailey, Simpson & Maclennan, 2012: 1쪽). 이 정의는 미국 사회학자 William Julius Wilson이 시카고 빈민 지역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내린 결론 "local conditions and the social practices of residents of poor areas cannot be understood independently of the macro social and economic forces which shape them"(Dacy and Gwyther 2011)에 기초한다(van Ham, Manley, Bailey, Simpson & Maclennan, 2012)

3) Galster(2012)는 이웃효과가 나타나는 기제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기제 이외에, 환경적 기제(폭력

들은 가장 중심적인 이웃 제도(neighbourhood institution)로 학교가 이웃효과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Kauppinen, 2008). Mayer와 Jencks (1989)에 따르면, 학교가 이웃효과를 매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감염이론(contagion theory)과 사회통제모델(social control model)이다. 전자는 이웃의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구성이 어린 시절에 영향력이 큰 동급친구들(peer)을 통하여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동급생 효과(peer effect)로 나타난다(Kang, 2007). 후자는 학교의 친구보다는 교사들의 역할에 주목하는데 교사들은 학생들의 롤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치와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집단적 특성은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성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거나 학생들의 행동에 따라 교사들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교사(성인)와 학생(친구)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학교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다른 요소들보다 큰 작용을 할 수 있다. 또 방과 후 시간의 친구들 역시 학교에서의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음으로써 행동과 태도, 가치와 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가 이웃효과를 매개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방지하는 역할(특히, 이웃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Johnson (2010)에 따르면, 학교가 이웃의 환경과 독립적인 제도로서 이웃의 영향을 받기보다 독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이론은 자율적인 제도(autonomous institution)로서 학교를 강조한다.<sup>4)</sup> Johnson(2010)에 따르면, 자율적인 제도로서 학교를 보는 이론은 학교를 외생적 제도로 보는 이론과 제도 공동체 이론으로 나뉜다. 전자는 학교의 구조, 구축된 환경 및 사회적 과정이 학교가 자리 잡은 사회경제적 맥락이나 학생들이 사는 지역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교에 대한 투자,

에 대한 노출, 물리적 주변 환경이나 독성물질에 대한 접촉), 지리학적 기제(지역의 위치가 영향을 주는 미스매치-일자리와 구직자, 대중교통의 접근성), 그리고 제도적 기제(지역의 공공제도나 사회조직-학교, 탁아시설, 의료시설, 조직이나 단체 등)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실증 연구들은 이들 기제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맥락, 특히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한국의 경우 학생들에게 학교 이외의 환경적 기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지리학적 위치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공간불일치가 자치단체의 재원이 보다 중요한 미국 등과 같은 사회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ohnson(2012)와 장수명(2014)의 이웃효과와 학교효과에 대한 논의를 보기 바란다.

건축물, 학교규모, 교직원, 교육과정 등이 이웃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에게 독자적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후자는 학교라는 제도는 조직 공동체(교육정책 결정기관, 교사 노조와 같은 조직된 공동체)속에 배태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직상의 공동체의 일부로서 학교가 미치는 영향이 이웃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고 보았다. 이때 학교의 독립적인 영향을 강조하지 않고 있지만, 학교가 지역 사회와 독립적이고 교육 분야의 조직공동체의 일부로서 이웃의 환경보다 학교가 속한 조직공동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는 학교제도의 특성을 기술함으로 이웃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후자는 그 독립성의 원인을 제도공동체로 설명하는 셈이다.

이 이론들의 배경은 학교라는 제도가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성이 적고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적 맥락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균등한 재정배분과 동질의 교사 양성체제 및 광역단위의 선발배치로 인하여 학교를 둘러싼 이웃의 사회적 구성이 다르더라도 학교라는 제도의 특성이 교육 관련 중앙 또는 광역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독립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5)</sup> 따라서 독자적인 학교 제도에서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으로 매개되는 부정적(긍정적) 이웃효과가 오히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형태(2015)의 연구는 주목된다. 그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사와의 관계나 교사에 의해 형성되는 학교환경의 영향이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는 빈곤 청소년에게는 비빈곤 청소년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빈곤 청소년이 갖는 개인적·사회적 불리함을 학교 교사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을 직접 면담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함으로써 학교 등 공적 제도(기관)의 역할이 이웃효과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추출하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 중에서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이웃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가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

5) Neckerman(2007) 미국 도시 학교들의 불리한 상태는 이웃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학교가 속한 조직적 공동체(organizational community)에서 이루어진 정책결정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을 선택한 이유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맺는 교사, 친구들, 가족, 이웃과의 관계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역할에 대한 양적 분석에 기초한 선행 연구(김형태, 2015)를 일부나마 보완하는 것이 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대전시의 동·서부 간 교육격차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 두 곳을 선정, 해당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대전은 지역을 동·서부로 구분하여 각기 교육지원청을 한 곳씩 두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동구와 대덕구, 중구(태평동 일부 제외) 지역을 관할하며,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유성구, 중구(태평동 일부 포함)지역을 관할한다. 일반적으로 대전의 교육낙후지역은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을 의미하며 특히, 동구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인 동구 J동의 A중학교와 B중학교,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인 유성구 N동의 C중학교이다. 두 지역 연구 참여 학생의 남녀비율을 맞추기 위해 동구는 남학교 1개교와 여학교 1개교를, 유성구는 남녀공학 1개교를 선정하였다. 동구 지역에서는 각각 남학교와 여학교를 선정한 반면, 유성구에서는 남녀공학을 선정한 이유는 동구 J동의 학교들은 역사가 오래되어 대부분 설립 당시의 남·녀 구별된 학교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성구 N동은 최근 개발된 신도시로서 신설된 학교들이 모두 남녀공학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대상 학년을 중학교 3학년으로 한정된 것은 중학교의 최고 학년으로서 가장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업과 진로선택에 있어 고민이 많은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착안하여 심층면담에서 보다 깊이 있는 응답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PISA와 같이 대표적인 국제조사에서도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학교 3학년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자가 각 학교를 사전 방문하여 연구 배경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참여 학생 선정방식을 협의하였다. 이후 각 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배경과 참여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한 결과, A중학교 남학생 4명, B중학교 여학생 4명, C중학교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총 15명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5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2개월 간이며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각 학교 및 지역의 배경은 각 학교 홈페이지, 학교알리미(초, 중등 정보공시서비스), 각 구청 홈페이지와 통계청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심층면담 형식은 반구조화된 질문 형식을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은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회당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 참여 학생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질문은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 가정생활이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교사와의 관계, 교우 관계, 부모·형제 관계, 여가시간 보내기,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의 세부항목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심층면담에 임하는 학생의 태도, 옷차림, 학교의 분위기,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도 메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고 면담 후 즉시 전사(transcription)를 하였다.

전사 자료를 반복해 읽으면서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에 집중하며 주요 개념들을 분

류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연결하였다. 중요한 주제를 찾아 분류 작업이 이루어진 자료를 코딩작업을 통해 분석하였다. 코딩은 내용 간의 관련성을 찾아 중심 개념을 파악하고 범주화하는 개방코딩(open cod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을 마친 자료는 개방코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의 공통된 의미를 찾는 심층코딩 작업을 하였다.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 및 분석 과정에서 연구 참여 학교의 교사, 교육복지사의 검증을 받았으며 동료검토를 실시하였다.

### 3. 두 지역 연구 참여 학생들의 지역적 배경

대전시는 90년대 초, 서구의 둔산 신도시 개발로 둔산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정부청사와 시청, 법원 등 주요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집중되면서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가 구도심에서 서구 둔산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둔산 지역에 학원가가 형성되면서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의 유입이 가속화되었고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지닌 중산층 인구의 집중화를 가져왔다. 반면 동구, 중구 등의 구도심 지역은 행정 기관과 상업 시설이 신도시로 옮겨가고 상당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차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는 지역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유성구 노은 지역에도 대규모의 신도시가 형성되어 서구와 함께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유성구에는 국립종합대학교 2개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업체 연구소와 국책 연구소가 밀집한 연구단지가 있어 주민들의 학력이 대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두 지역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주민의 교육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표 1을 보면 대학교(4년제 이상)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민의 비율이 유성구 41.3%, 동구 21.4%로 유성구가 동구의 약 두 배에 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비율도 동구가 유성구의 약 3배에 이르며, 대전 평균인 2.84%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1  
두 지역의 학력 및 기초생활수급자

(단위: 명)

	동구	유성구
대학교(4년제 이상)	47,259(19.3%)	83,572(28.8%)
대학원	5,366(2.1%)	39,486(12.5%)
기초생활수급자	10,898(4.29%)	4,446(1.39%)

\* 자료: 인구총조사(2010), 대전광역시 동구, 유성구 통계연보(2014)

연구 참여 학생들이 재학 중인 각 학교별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수를 비교하였다. 아래의 표 2를 보면 A중학교와 B중학교의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수는 C중학교의 약 6~7배에 이를 만큼 격차가 심하다. 급식비 지원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보통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130%이하, 150%이하이다.

표 2  
각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

(단위: 명)

	A중학교	B중학교	C중학교
전체인원	332	391	972
급식지원대상학생수	119(35.8%)	170(43.4%)	56(5.76%)

\* 자료 : 학교알리미 교육정보 공시 서비스(2015)

표 3과 같이 각 학교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를 보면 동구의 A, B중학교와 유성구의 C중학교는 국어 과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약 20점의 큰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원 및 교습소 통계에서도 동·서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3  
 각 학교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단위: %)

학교	과목	국어	수학	영어
A중학교	보통학력 이상	85.00	64.60	67.30
	기초학력	15.00	35.40	32.70
B중학교	보통학력 이상	86.30	55.70	64.90
	기초학력	11.40	39.70	34.30
C중학교	보통학력 이상	90.40	79.70	84.20
	기초학력	8.20	19.20	13.80

\* 자료 : 학교알리미 교육정보 공시 서비스(2015)

표 4  
 학원 및 교습소 통계

(단위: 수)

지역 교육지원청	학원	교습소
대전 동부	902	504
대전 서부	1,490	768

\* 자료: 대전교육통계연보(2015)

#### 4. 두 지역 연구 참여 학생들의 가정 배경

연구 참여 학생들의 가정배경을 부모의 학력, 직업,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가족형태에서 동구의 A중학교와 B중학교는 8명의 학생 중 한 부모 가정이 3가정인 반면 유성구의 C중학교는 한 가정도 없다. 부모의 학력은 동구의 A중학교와 B중학교의 경우, 부모가 모두 대졸 이상이 2가정뿐이었으며 고졸학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C중학교 학생 7명의 부모의 학력은 전부 대졸 이상이다. 부모의 직업은 동구의 A중학교와 B중학교 학생의 부모는 자영업 종사자가 많았으며 유성구의 C중학교 학생의 부모는 회사원, 공무원, 연구원 등이 다수였다.

표 5

A, B, C중학교 학생들의 가정배경

이름	소속	학력		직업	
		부	모	부	모
김정민	A중학교	× (이혼)	전문대졸	× (이혼)	자영업
서경석	A중학교	대졸	대학원졸	소방공무원	대학강사
김윤식	A중학교	대졸	고졸	운송업	주부
강만세	A중학교	고졸	고교중퇴	자영업	주부
김지혜	B중학교	대졸	대졸	소설가	보험설계사
이정은	B중학교	고졸	×	회사원	×
신세경	B중학교	고졸	× (별거)	청소용역	× (별거)
김은진	B중학교	고졸	고졸	자영업	주부
김하늘	C중학교	대졸	대졸	화가	미술교사
이빛나	C중학교	대학원졸	대졸	건축가	요리연구가
김호준	C중학교	대졸	대졸	연구원	주부
장희영	C중학교	대졸	대졸	건설업	공무원
박진영	C중학교	대졸	대졸	웨딩사업	주부
이승원	C중학교	대졸	대졸	회사원	주부
서경원	C중학교	대졸	대졸	은행원	주부

5. 두 지역 연구 참여 학교의 특성

1) 동부 - A중학교(동구)

A중학교는 대전시의 대표적인 교육낙후지역인 동구에 위치한 사립 남자 중학교이다.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하여 전체 13학급이며 학생 수는 총 332명이다. 야간자율학습이 주4회(금요일 제외)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저녁급식이 제공된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이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길을 사이에 두고 전문대학과 인접하고 있어 교문 주변에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 주점, 음식점, 오락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다. 낙후된 주택가와 상업지역

이 혼재된 지역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 2) 동부 - B중학교 (동구)

B중학교 역시 동구에 위치한 사립 여자 중학교로서 위에 언급한 A중학교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하여 전체 15학급에 학생수는 391명이다. 전문상담교사가 1명 배치되어 있으며, 상담실과 함께 교육복지실이 있어 교육복지대상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B중학교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비만 학생이 많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비만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해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학교 학생들의 비만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교 주변은 낙후된 단독주택가로서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가 학생들의 주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 보행안전을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3) 서부 - C중학교(유성구)

C중학교는 유성구에 위치한 공립 남녀공학 중학교이다.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하여 전체 29학급, 총 학생수 972명이며 전문상담교사가 1명 배치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 대전시 N지역에 조성된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인근에는 지하철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공원, 도서관 등이 잘 조성되어 있는 쾌적한 주거지역이다. 또한 학원이 밀집되어 있어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 III. 학생들의 생활양식에 드러난 계층별 지역분리의 영향

## 1. 학원의 굴레에 갇힌 아이들 VS 방치된 아이들

유성구의 C중학교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일상은 학교 수업과 방과 후의 학원 수업으로 채워져 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일상은 주중뿐 아니라 주말에도 이

어진다. 학생들의 시간은 학원 수업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부과하는 과도한 과제를 수행하며 대부분의 '자유' 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과 과제가 우선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이 학교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학교의 역할이 학원에 의해 제약되고 방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 학원은 주 몇 회나 가요?

진영 : 3회요. 아, 아니다. 매일매일 가요.

연구자 : 매일 학원가고 학원 갔다 와서 자유 시간에는 어떻게 보내요?

진영 : 집에서 숙제하거나 그냥 누워 있고...

연구자 : 학원 숙제 끝내고나면 주로 뭘 하면서 지내요?

진영 : 핸드폰 보거나 TV 봐요. 아니면 친구랑 놀고...

(C중학교 박진영)

연구자 : 자거나 떠들거나 하지 않으면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빛나 : 그건 없어요. 대신 떠드는데 말 거는 애들이 있어요.

연구자 : 방해는 되지 않지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빛나 : 저 같은 경우는 집중 안할 때 그냥 딴생각 많이 해요. 학원 숙제 하는 아이들도 있고...

(C중학교 이빛나)

방과 후 시간을 대부분 학원에서 보내는 C중학교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하는 시간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자신들의 일상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의 모습이 없다. 이는 그들의 또래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학급에서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지 않는 학생은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학교와 학원을 왕복하는 자신들의 생활이 학력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이나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다.

주중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친구들은 주말에 만나요. 주중에는 좀 바쁘니까... 주중에는 학원에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10시 반이예요.  
(C중학교 박진영)

연구자 : 방과 후 생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호준이는 4시에 학교 끝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호준 : 저는 일단 집으로 반드시 와요. 다음에 5시에 학원으로 가요.

연구자 : 그럼 학원 끝나고 집으로 오는 시간은 몇 시예요?

호준 : 6시에서 6시 반이요.

연구자 : 저녁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기네요? 학원도 한 군데만 가니까?

호준 :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만 인강(인터넷 강의)을 들으니까. 인강이 한 서너 시간 뺏어가요.

연구자 : TV는 안 본다고 했죠?

호준 : 네. 완벽한 조건이죠.

연구자 : TV 안 보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

호준 : 이게 처음에는 마약처럼 끊기 힘들 거 같은데 안 보게 되면 점점 괜찮아져요. 애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대화에 끼기 힘들 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연구자 : 그러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몇 시예요?

호준 : 저는 좀 늦어요. 12시에서 1시 정도.

(C중학교 김호준)

C중학교 연구 참여 학생들의 학교 이후의 시·공간은 학원과 성적 경쟁에 점유당한 채, 다른 활동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개성을 발달시킬 기회를 통제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유성구의 C중학교와 대조적으로 동구의 A중학교와 B중학교의 연구 참여 학생들 중에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다. A중학교와 B중학교는 인접한 학교로서 두 학교 학생들의 지역적 배경, 가정 배경 등이 유사하다. 그런데 A중학교와 B중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은 대조적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A중학교 학생들과 달리, B중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는 자유로웠지

만 일부 방치되어 있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학교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이 두 중학교를 통해 알 수 있다.

A중학교는 주 4회 밤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뒤쳐진 학력을 보완하기 위한 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참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학교 3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을 통제하면서 서구의 사교육 같은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 수업 끝나고 방과 후 시간은 어떻게 보내나요?

만세 : 저희 학교는 방과 후에 야간 자율 학습을 해요. 자율학습 하면 9시에 끝나요.

연구자 : 자율학습은 매일 하나요?

만세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요.

연구자 : 자율학습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님 다 참여해요?

만세 : 신청자만 하는데 3학년은 거의 다 해요.

(A중학교 강만세)

반면, B여중 연구 참여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은 완전한 자유 시간이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집에서 주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다. 일부는 친구들과 거리를 배회하면서 군것질 등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많지만 부모의 관심과 돌봄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앞선 유성구의 C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처럼 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 경제 기반을 가진 가정과 부모의 영향력이 학원을 통해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구자 : 방과 후에 주로 뭐하면서 보내요?

은진 : 쉬고, TV보고, 핸드폰하고, 운동해요.

연구자 : 어디 놀러가지는 않아요?

은진 : 놀 때도 있어요.

연구자 :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은진 : 3, 4일어요.

연구자 : 어디에 가요?

은진 : 친구 집 가거나 다른데 놀러가요.

연구자 : 어디로 놀러 가는데요?

은진 : 뭐 먹으러 가요.

(B중학교 김은진)

연구자 : (방과 후에) 집에서 주로 뭐하죠?

지혜 : 집에 가서 씻고 엄마랑 조금 떠들고 핸드폰 해요.

연구자 : TV는 안 보나요?

지혜 : TV도 봐요. 10시쯤에. 드라마나 예능 봐요.

연구자 : 하루에 TV는 얼마나 보는 것 같아요?

지혜 : 한 두 시간 봐요. 주로 핸드폰을 많이 봐요.

연구자 : 그럼 집에서 책 읽거나 숙제를 하는 경우는?

지혜 : 거의 없어요. 솔직히.

(B중학교 김지혜)

동구의 이 두 중학교의 경우에서 볼 때, 학생들의 정규수업 이후의 생활과 학습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즉 학교가 학습시간을 연장하여 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의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는 반면, 학교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 학생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대안의 필요성이 관찰된다.

## 2. 교사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 : 부모 같은 선생님 VS 친구 같은 선생님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은 학교이며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좋은 교사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구의 A중학교와

B중학교 학생들은 ‘친자식 대하듯’, ‘관심을 가져주는’, ‘잘 챙겨주는’ 교사에 대한 선호를 보인 반면, 유성구의 C중학교 학생들은 ‘유머가 있는’, ‘이해가 잘 되게 가르치는’, ‘자유로운’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 : 호준이가 생각할 때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거 같아요?

호준 : 교과서에서만 문제 내는 선생님.

연구자 : 또 그런 교과적인 거 말고 다른 걸로는 뭐가 있을까요?

호준 : 자유로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엄격하지 않고, 수업할 때 보면 간혹 가다 어떤 선생님은 애들 떠들어도 그냥 수업만 하거든요. 그런 선생님 말고 애들 떠드는 분위기를 잘 풀어가지고, 확 잡는 게 아니라, 잘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선생님이 최고인 거 같아요.

(C중학교 김호준)

연구자 : 특별히 좋아하는 선생님 있어요?

세경 : 기가 선생님이요.

연구자 : 그 선생님이 왜 좋아요?

세경 : 저랑 제일 성격이 좀 비슷하시고, 저를 잘 이해해주시고,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못 다니지만... 그때 다니면서 친해져서 그 선생님이 저를 제일 잘 챙겨주세요.

연구자 : 그럼 세경이가 생각할 때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세경 : 좀 떨어지는 학생이더라도 다 잘 챙겨주시는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요.

(B중학교 신세경)

연구자 : 정민이가 생각할 때 어떤 선생님,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사란?

정민 : 000선생님이라고 계셔요. 저희들 학생들은 남의 자식들인데 마치 자신의 친자식들 대하듯 대해주시고 수행평가나 그런 거 매우 꼼꼼하게 저희를 항상 A맞게 해주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 부분이 좋아요.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A중학교 김정민)

연구자 : 승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승원 : 너무 놀지도 않고 너무 공부만 하지도 않고...

연구자 : 적당히 잘 조절하실 수 있는 선생님?

승원 : 네.

연구자 : 또 그거 말고는 없을까? 학생 얘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라든지, 학생을 잘 도와주는 선생님이라든지, 유머가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승원 : 유머가 있는 선생님이 좋아요.

(C중학교 이승원)

동구의 A중학교와 B중학교 학생들은 마치 부모님과 같은 따듯한 배려와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부모, 맞벌이 등 불안정한 가정 배경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돌봄의 결핍을 교사로부터 충족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안정적인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 유성구의 C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 친구와 같은 편안함, 흥미, 재미를 중시한다. 이는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통제,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어지는 학습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친구처럼 편안하고 유머러스한 교사와의 편안한 관계를 통해 빈틈없이 통제된 일상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숨을 돌릴 여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부모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교사에 대한 편안함이 이러한 태도로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지역 학생들의 좋은 교사에 대한 인식에서 한 지역에서는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은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이 놓인 가정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두 지역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볼 때 학교가 지역의 영향 뿐 아니라 가정의 영향을 완화해주거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이웃과 관계맺음의 서로 다른 양상

청소년들은 가족, 또래, 그리고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한다. 그들이 만나는 이웃의 성인들은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고 종교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기관들은 청소년들에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연구자 : 지금 정민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있잖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정민 : 그냥... 인심, 정이 많은 곳?

연구자 : 또 다른 특징은... 정이 많고?

정민 : 그냥 평범한 동네예요.

연구자 : 평범하다는 거, 정확한 뜻이 뭘까? 아주 잘살지도 않고 많이 못살지도 않고 그런 뜻이에요?

정민 : 네.

연구자 : 그럼 동네 사람들끼리는 서로 가깝게 지내요?

정민 : 네, 가까운 편이에요.

연구자 :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정민 : 네.

(A중학교 김정민)

연구자 : 전에 살던 00동은 어떤 동네고, 지금 살고 있는 00동은 어떤 동네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정은 : 00동에서 제가 살던 곳은 이웃집들이랑 좀 가까이 붙어 있고 지금 00동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연구자 : 집들이 붙어 있는 거 하고 떨어져있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은 : 붙어 있으면 이웃들이랑 친했어요.

연구자 : 그런데 00동으로 이사 오니까 덜 친해요?

정은 : 그냥 인사하는 정도예요.

연구자 : 그거 말고 00동의 다른 특징이 뭐예요?

정은 : 초등학교 바로 앞이어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B중학교 이정은)

연구자 : 그럼 00동은 어때요? 하늘이가 생각하기에 어떤 곳인 거 같아요?

하늘 : 네. 그 동네 마음에 들어요.

연구자 : 어떤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하늘 : 깨끗해요. 밤 되면 조용해서 공부하기 좋아요.

연구자 : 아~ 그렇구나,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하늘 : 네,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유흥가도 없어서 별로 안 시끄러워요.

(C중학교 김하늘)

연구자 : 승원이 지금 살고 있는 00동에 대해서 설명하면 어떤 동네인 것 같아요?

승원 : 편의시설이 많아요.

연구자 : 어떤 편의시설이 있어?

승원 : 먹을 거랑 쇼핑, 뭐 많아요.

연구자 : 어렸을 때부터 살았잖아. 어때? 살고 있는 동네가 어때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요?

승원 : 편하고 주변에 운동하는 데도 있어서 괜찮아요.

(C중학교 이승원)

이들의 응답에서 독특한 점은 두 지역 학생들의 이웃과 지역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인식에 있어 동구 지역의 A중학교와 B중학교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응답은 주로 사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유성구 지역 학생들은 이웃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주변의 편의시설, 문화 공간 등과 같은 시설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역과 이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두 지역 학생들이 이웃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A, B중학교의 학생 8명 중 4명은 종교단체나 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도 갖고 있다.

연구자 : 영어동아리 활동이라고 했죠? 그건 누가 처음에 만든 거예요?

만세 : 거기 교회 선생님이요.

연구자 : 교회 선생님이 처음에 동아리 활동 하자고 조직을 해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언제 처음 시작했어요?

만세 : 작년 여름에...

연구자 : 주로 어디서 활동해요?

만세 : 교회에서요.

연구자 : 어떤 활동을 하나요?

만세 : 모여서 원어민하고 대화도 하고요, 영화도 보고, 방학 땀 캠프도 가고 그래요.

(A중학교 강만세)

연구자 : 지혜네 집 근처에 청소년 센터나 수련원이 있나요?

지혜 : 아니요, 있었는데 먼 데로 이사 갔어요.

연구자 :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지혜 : 네. 어렸을 때 맨날 거기서 놀았어요. 이번에도 연락해서 캠프 가요.

(B중학교 김지혜)

한편, 유성구의 C중학교 학생들은 여가시간을 이용해 종교단체나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한 명도 없다. 7명의 학생 중 5명이 교회나 성당을 다니고 있지만 일요일에 예배나 미사에 참여할 뿐 그 밖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다. 학교 인근에 도서관이 있지만 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은 없다.

연구자 :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죠?

호준 : 네.

연구자 : 그럼 도서관에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 있어요?

호준 : 아니요.

연구자 : 왜 참여하지 않았어요?

호준 : 별루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C중학교 김호준)

C중학교의 연구 참여 학생들은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다. 이들은 학원시간에 맞추느라 혼자서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 학원에서 돌아와 갖는 1~2시간의 여유조차 각자 방에서 휴대폰을 본다. 주말에도 또래와 어울리거나 취미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학생들은 학습에 몰입하느라 또래와 이웃으로부터 단절된 생활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 같다.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민간단체 혹은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은 각종 문화적 혜택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대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4. 학교의 다중성 : 학습에서 돌봄까지

B중학교는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비율이 43.4%로 C중학교의 8배에 달한다. 부모의 직업과 학력 역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연구 참여 학생 4명 중 2명이 한 부모 가정으로 B중학교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가장 취약하다. B중학교의 두드러진 특징은 비만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가정으로부터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습관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면담을 통해서도 학생들은 인스턴트 음식, 군것질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B중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의 비만관리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중학교는 또한 교육복지실을 갖추고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교육복지투자대상 학생들의 진로지도, 생활지도, 다양한 특별활동 등을 지원한다. 가정으로부터의 돌봄의 결핍을 학교가 보완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 방과 후에 세경이는 주로 뭐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세경 : 방과 후 수업 1교시해요.

연구자 : 그럼 5시쯤 끝나요?

세경 : 네.

연구자 : 그러면 뭐해요?

세경 : 반딧불이라고 복지 수업을 해요, 2시간 동안.

연구자 : 그러면 총 3시간 수업을 더 하는 거예요?

세경 : 네.

연구자 : 그럼 몇 시에 끝나요?

세경 : 6시 40분이요.

연구자 : 그러면 그 때 집에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경 : 네.

(B중학교 신세경)

A중학교의 경우는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중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밖 사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B중학교와 유사한 환경에 놓인 A중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단순히 학교가 학력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대신하는 것 이상의 의미, 즉 가정과 같은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는 미처 직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홀로 해결해야 하는 저녁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야간자율학습이 단순히 학력 향상만을 추구하는 의도에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과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간자율학습만이 유일한 방안인지,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 : 혹시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하고 하니까 특별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게 있어요?

경석 : 네. 야자...

연구자 : 야자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경석 : 3월 초부터요.

연구자 : 그럼 희망하는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경석 : 네

연구자 : 얼마나 해요?

경석 : 거의 다 해요.

연구자 : 각자 반에서?

경석 : 시청각실에서 해요.

연구자 : 그럼 감독하시는 선생님도 항상 계시고요?

경석 : 네. 월화수목 바뀌긴 하는데…  
연구자 : 그럼 야자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경석 : 6시 반이요.  
연구자 : 저녁도 학교에서 먹어요?  
경석 : 네.  
연구자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시 반부터 9시까지?  
경석 : 네.  
연구자 : 어때 참여해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경석 : 네 조금…  
연구자 : 어떤 면에 도움이 될까요?  
경석 : 조용히 공부할 수 있고…

(A중학교 서경석)

C중학교 연구 참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A, B중학교 학생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자 : 승원이 아침에 학교에 몇 시에 등교하죠?  
승원 : 7시쯤이요.  
연구자 : 하교는?  
승원 : 4시쯤이요.  
연구자 : 아까 승원이 4시쯤이면 집에 온다고 했잖아, 그 후에 방과 후에는 뭐해?  
승원 : 학교 방과 후에 배드민턴을 월, 수, 금해요.  
연구자 : 나머지는?  
승원 : 화, 목에는 집에 그냥 와서 학원가요.  
연구자 : 그럼 배드민턴 하고나면 집에 몇 시쯤 돌아오는데요?  
승원 : 한 여섯시쯤에 끝나서 씻고 바로 학원에 가요.  
연구자 : 그럼 매일 학원이 있는 거네요?  
승원 : 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씩?  
연구자 : 그러면 학원까지 갔다가 집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예요?  
승원 : 월요일에는 11시고 나머지는 10시정도예요.

(C중학교 이승원)

이와 같이 학생들이 지닌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과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활동의 영역은 대비된다. 위의 세 학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학교가 수행하는 역할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어떤 학교는 학습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학교는 돌봄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그 구성원들의 특성과 처한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학교의 모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할수록 학교가 발휘하는 영향력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학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 내용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대안의 기관이 돌봄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IV. 논의 및 결론

한국의 각 도시에서 지역분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여러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학령기의 자녀를 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밀집되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심각한 학력 격차로 인해 대전의 강남과 강북으로 불리는 동·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계층별로 분리된 지역에서 학교의 역할의 차이를 밝히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일상생활 양식에서 동·서 지역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서부 지역 유성구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은 거의 학원의 굴레에 갇혀있었고, 일부는 학교생활조차 학원에 의해 침해받고 제약받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학력경쟁의 규범을 내면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반면, 동부 지역의 동구 학생들의 경우 학교와 지역 사회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개인 생활의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대안적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좋은 교사에 대하여 동구 학생들은 가정으로부터의 결핍을 채워 주고 돌봐줄 부모 같은 교사상을 기대한 반면, 유성구 학생들은 학원과 학업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관계를 갖는 친구 같은 선생님을 기대했다. 동구의 학교는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야간자율학습으로 이어지는 학습시간 연장, 저녁급식 제공, 비만 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

로써 일부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웃에 대하여 동구 학생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일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서구 학생들은 편의시설 및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이웃을 인식하며 지역 사회기관의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학생들이 이웃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이웃의 특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학원 교습에 대한 집단적인 참여 등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 효과가 학교를 통해 특이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학교가 나쁜 이웃효과 ‘감염’의 통로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학교 제도에서의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생들 간의 관계, 학교 정규수업 이후의 생활에서 동·서 간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사회의 특성과 무관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 학원 및 지역사회기관을 통해 이웃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학교가 특히, 취약한 지역에서 일정한 독립적인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설정한 역할에 따라 학교는 돌봄과 학업의 양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가정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 학생들에게 학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김형태(2015)의 연구를 확인하는 것이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에서 학교의 역할은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오히려 이들에 비해 위축되고 제약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볼 때, 학생들이 학원과 과외교습의 규범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웃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층이 모여 생활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역시 잘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관심도 없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습 부담과 엄격하게 통제된 시간의 제약 때문이다.

이웃, 즉 지역사회의 기관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학생발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된다.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거리를 배회하거나 TV, 스마트폰 등과 함께 방치된 채 보내야 하는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이

웃의 종교단체나 각종 청소년 시설은 더없이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통해 학력을 보완하고 취미를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돌봄 사각지대에서 그들의 쉼터이자 안식처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학교가 이웃으로부터 독립적인 제도인가 또는 이웃 효과의 통로로서 이웃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관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학교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영향력도 매우 높지만, 지역 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학교는 지역 사회의 교육적 조건과 배경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원이 많고 사교육 수요가 높은 서구에서의 학교의 역할은 독립적이나 축소된 반면, 가정의 교육적 역할이 낮은 동구에서는 학교의 역할과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된 제도로서의 학교가 이웃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그 역할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앞으로의 이론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볼 때, 학교, 사설 학원 및 지역 사회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의 역할과 지역사회기관 또는 학원 등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학교와 같은 공적 제도와 프로그램 개발은 청소년의 일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요청한다. 청소년들의 시간배분과 친구, 가족, 이웃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신체적·지적·사회적·정서적 성장 발달의 요구는 어떻게 발현되고 충족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제약 받고 있으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그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많은 연구들이 학생들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공적·준공공적 제도들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미시적 분석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추후 연구가 확장되고 심화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보다 친화적인 제도를 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경근 (2005). 한국사회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723-747.
- 김경근, 장희진 (2005). 교육적 동기에서 거주지를 이동한 가족의 특성.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 논문집**, 81-100.
- 김교성, 노혜진 (2009). 지역빈곤의 격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2), 85-106.
- 김교성 (2010). 서울시 가구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17(1), 215-240.
- 김미숙, 상종열 (2014) 거주지 분리와 교육에 대한 사례연구: 성남시 수정구 어머니들의 경험과 인식. **교육사회학연구**, 24(2), 67-91.
- 김종혁, 이상원 (2010). 교육특구의 특성과 자식교육을 위한 삶의 형태: 대구 수성구. **중등교육연구**, 58(1), 39-70.
- 김형태 (2015) 학교환경인식이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6(1), 269-291.
- 대전교육연구소 (2007). **대전시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 및 해소 방안**. 대전: 대전교육연구소
- 류방란 외 (2005).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사업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연구보고, RR2005-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주현 (2006). 거주지별 교육환경의 차별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1), 69-78.
- 배순석, 전성제 (2006).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입지현황과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51, 191-206.
- 변수용, 김경근 (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 손준종 (2004). 교육공간으로서 강남 읽기: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14(3), 107-131.
- 양병찬, 지희숙, 박혜원 (2011). 전업주부의 배움의 방식과 주체형성: 대전 지역의 두 마을도서관운동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7(4), 205-234.
- 임선희, 김경희 (2006). 대전의 동서지역 교육격차실태와 해소방안. **교육사회학연구**,

- 16(3), 185-206.
- 최은영 (2004). **서울의 거주지 심화와 교육환경의 차별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효, 장수명 (2014). 교육적 수요에 따른 계층 간 주거분리 분석. **교육재정경제**, 23(2), 1-25.
- 인구총조사 (2010). 국가통계포털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 에서 2015년 12월 11일 인출.
- 대전광역시 통계연보 (2014). 대전광역시 웹 사이트 <http://search.daejeon.go.kr/RSA/front/Search.jsp?menu>, 에서 2015년 12월 11일 인출.
- 대전광역시 동구 통계연보 (2014). 동구청 웹 사이트 [http://www.donggu.go.kr/board/home\\_notice/home\\_pride\\_010904/view/114273.do](http://www.donggu.go.kr/board/home_notice/home_pride_010904/view/114273.do), 에서 2015년 12월 11일 인출.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계연보 (2014). 유성구청 웹 사이트 <http://www.yuseong.go.kr/?p=377633>, 에서 2015년 12월 11일 인출.
- 학교알리미 교육정보 공시 서비스 (2015). [http://www.schoolinfo.go.kr/ei/ss/Pneiss\\_b01\\_s0.do](http://www.schoolinfo.go.kr/ei/ss/Pneiss_b01_s0.do), 에서 2015년 12월 11일 인출.
- 대전교육통계연보 (2015). 대전광역시 교육청 웹 사이트 <http://www.dje.go.kr/dje/sign/030301.do?menuID=030301&menuID=0303>에서 2016년 1월 23일 인출.
- Cohen, D. K., Ball, D. L., Camburn, E., & Rowan, B. (1997). *Instructional improvement and disadvantaged students(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Michigan
- Kauppinen, Timo M. (2008). School as mediators of neighbourhood effects on choice between vocational and academic tracks of secondary education in Helsinki.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3), 379-391.
- Johnson, O. (2008). Ecology in educational theory: Thoughts on ecology, stratification and proximal capital. *Urban Review*, 40, 227-246.
- Johnson, O. (2008). A systematic review of neighborhood and institutional relationships related to education. *Education and Society*, 20(10), 1-35.
- Neckerman, K. (2007). *Schools betrayed: Roots of failure in urban inner-city educa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n Ham, M., Manley, D., Bailey, N., Simpson, L., & Maclennan, D. (2012). *Neighbourhood effects research: New perspectives*. New York, NY: Springer

## ABSTRACT

### The different roles of the school uncovered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life styles in two social-economically different residential areas

Jang, Soomyung\* · Park, Heawon\*\*

Observing the increasing social-economic differences between neighborhood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middle school seniors at two social-economically different residential areas(RA), the disadvantaged east and the advantaged west of Daejeon City and analyzed the results. It did so to examine the school and neighborhood effects. The results identified differences in their interactions across RAs. Student life in the west is constrained by after school study (and even part of their school lives are constrained by private tutoring) and they accepted achievement competition as normal. However, student after school life in the east appeared to be somewhat neglected, even with accounting for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chool's role and other social program participation. While east students want their teachers to take the role of care givers like their parents, west students want teachers who are more like their friends, who do not push them to study. The roles of schools are diverse: one of two schools in the east played the role of a form of full-care giver which the other schools did not play. In the west, the school role was interfered with by private and after school tutoring. While some east students participated in programs run by other social institutions, west students are not concerned with them. We found the roles of the schools and other social institutions to be important in determining student interactions.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of schools, private tutoring and social institutions are clearly required, even though their specific characters, values and objectives may differ.

Key Words: residential segregation by class, neighborhood effect, school effect, middle schoolers, life style, role of school

투고일: 2015. 12. 14, 심사일: 2016. 1. 29, 심사완료일: 2016. 2. 12

---

\* Associate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 Kongju National University